

2012 올림픽 런던 스트랫포드 재개발 2015 U대회 광주 화정동일대 새면모

지금 런던·광주는 도시 재생중

런던=글·사진 윤현석기자

2012년 올림픽을 유치한 런던은 스포츠 마케팅과 도시재생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가 노후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선수촌을 조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런던은 도시내 가장 낙후한 지역을 재개발해 아늑한 사명과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연계시킨 것이다.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스트랫포드(Stratford)를 찾았다. 과거 항구 공업단지였던 이곳에서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9개의 체육시설과 주택·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개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스트랫포드역 주변에는 공사 인부들과 함께 이곳을 견학 온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다.

런던이 1908년, 1948년 대회에 이어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3번의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5년. 2012년 올림픽의 중심 테마를 친환경적인 올림픽으로 선정한 영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17차 IOC총회에서 모스크바, 뉴욕, 마드리드, 파리를 제치고 4차 투표 만에 개최권을 따낸 결정적인 요인은 단순히 즐기는 스포츠축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런던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의 재생을 연계시킨 아이디어였다.



런던 최대의 낙후지역인 스트랫포드 일대는 내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쇼핑센터 및 주택 건설 등 도시 개조사업이 한창이다.

공사현장에서 만난 런던시 직원 제임스 섀튼(45)씨는 "런던이 올림픽을 유치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해냈다"며 "세계도시 런던의 어두운 그늘이었던 이 지역에 100년 만에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햇살이 비추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어떤 플리에 참여하고 있는 스페인 건축가 알레한드로 자에로 플로가 설계한 2012년 런던올림픽 주경기장은 운동 선수의 부풀어 오른 근육을 테마로 디자인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중인 주경기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스트랫포드역 주변은 쇼핑센터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300만㎡에 조성되는 올림픽공원의 중심부에는 템즈강 지류인 리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주변은 넓은 제조업체 및 공장들과 건축한 지 수 십년 이 지난 주택들로 채워져 있었다. 리강은 지금까지도 악취가 풍기고 있었으나 그 주변에 광주의 푸른길과 같은 의미인 그린웨이(Green Way)가 조성되고 빈 공장과 창고는 '예술 갤러리(Art Gallery)'로 바뀌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다.

런던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얻고자한 것은 슬럼화된 이 지역을 재생하는 것은 물론 취업을 향상, 런던 금융중심지인 도크랜드(Dockland)와 연계하는 도시 축의 완성 등이다. 또 9억2000만 파운드(한화 16조282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올림픽 조성 비용을 투입하게 될 영국 정부가 2주간의 올림픽 기간이 지난 뒤 슬모없이 방치되는 체육시

설들의 활용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은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경기장의 경우 웨스트 햄이나 토트넘 핫스퍼 등 프리미어리그팀들이 자신의 경기장으로 임대하기 위해 협상중이며, 나머지 시설들도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한 건물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

런던시는 기반공사에만 모두 4만 t의 강관이 소요되는 올림픽공원 조성을 통해 공사중 일자리 2만 5000개는 물론 업무직 1만8000개, 쇼핑센터 인력 8500개, 기타 4500개 등 6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들어설 4만개의 주택은 선수촌으로 이용된 뒤 이 지역 내에 거주했던 영세민들의 공공임대아파트, 즉 저렴한 사회주택(Affordable Social Housing)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chadol@kwangju.co.kr

비수도권 합심, 수도권집중 일단 저지

여야 의원들, 첨단업종 추가 유보시켜

민주당 이낙연·이용섭 의원 등 비(非)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첨단업종의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저지를 천명(광주일보 5일자 1면)하고 나서자 지식경제부가 개정안 발효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달말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비수도권 지역 여론의 반발이 일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서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발효 시기를 부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5일 "당초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400여개 손질 계획이 이것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 상순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구미시가 일부 첨단업종 추가 삭제 등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달말 슬그머니 재입법예고까지

했다.

개정안은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발효시 해당 첨단업종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재입법에고한 개정안은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활체어 등 장애인 이동지원기기, 무선센네트워킹 장치 등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경부가 정부 전체의 스케줄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를 급하게만 매듭지으려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美 국무부 등

'구름' 아이웨이웨이 석방 촉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과 미국 국무부 등 국제사회가 최근 중국 당국에 구금된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석방을 촉구했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공동 감독이며,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웨이웨이(路青)와 친구들이 공안에게 체포 이유는 몰았으나, 답변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오는 8일 베이징 798예술구에서 아이웨이웨이 감독이 주재하기로 한 국제아카데미가 그가 없었다는 행방은 현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단은 5일 성명을 통해 "명확한 이유 없이 체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 예술행사

의 감독인 만큼 그의 현재 행방을 공개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사무실 컴퓨터가 압수됐고, 그와 일하는 외국인 직원 8명도 함께 연행됐다"면서 "부인 투칭(路青)과 친구들이 공안에게 체포 이유를 몰았으나, 답변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오는 8일 베이징 798예술구에서 아이웨이웨이 감독이 주재하기로 한 국제아카데미가 그가 없었다는 행방은 현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레를 지를 방침이다.



세계적 예술가의 구금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도 잇따라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각)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체포한 중국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D)는 성명을 내고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ah@

정부, 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려 표명

일본이 지난 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000여t을 바다에 방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5일 외교교통상부에 따르면 주일 한국대사관이 4일 오후 9시께 일본 외무성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적 기준의 100배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

에 방출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성 차원의 대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오염수는 5일간 조금씩 방출할 예정이며, 주변 수역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갈 경우에

는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볼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도쿄전력은 4일 오후 7시께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고여 있는 저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t과 5.6호기의 지하수 보관 시설에 있는 저농도 오염수 1500t을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5일 정오까지 방출된 오염수는 3400t이다.

/연합뉴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유기 농산물이란?
화학자재를 사용 안하거나 최소량만 사용 재배한 농산물로 일반농산물보다
노화방지제(엔티옥시던트)를 40% 더 많이 함유. 영국 <선데이타임즈 2008. 2. 28 보도>

녹색의 땅 전남

우리 가족 행복의 비결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호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전국 인증면적 57%를 녹색의 땅, 전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보다 한 발 먼저 '친환경 녹색축산 정책'을 시행한 녹색의 땅, 전남은 구제역으로부터도 안전한 '청정지대'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우리 전남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해조류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흙, 살아 숨쉬는 갯벌, **녹색의 땅,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전라남도
남도장터 ☎080-610-1114
www.jnmall.com

건강한 삶
남도장터
두려움없고